

한문에서 형용사의 품사전성현상에 대한 이해

려 동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문교육방법도 연구하며 한문의 고유한 언어적규범도 연구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276페이지)

한문은 단어들인 문장속에서 어순이나 보조어에 의하여 련결된 문법구조를 가지고있는 언어이므로 한 품사에 속하는 단어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품사전성현상도 어디까지나 한문의 언어적규범에 맞게 해석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문에서 형용사의 품사전성현상의 본질과 형용사의 품사전성한계점, 그 문법적조건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형용사의 품사전성현상의 본질을 밝히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품사전성현상이란 한 품사의 단어가 다른 품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문법적현상을 말한다.

례: 一波長川 (한 갈래의 긴 내가)

長必不得爲士大夫妻 (커서 반드시 사대부의 안해로 될수 없다.)

우의 실례와 같이 長川에서 형용사 長(긴 장)은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자기의 기본기능인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長必에서 형용사 長은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동사술어로 쓰이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동사로 전환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한문에서 단어의 품사전성현상은 형용사에만 국한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명사, 동사, 수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한문의 품사전성현상에 대하여 옳게 이해하자면 매개 한자들의 사전적뜻, 그에 따르는 기본기능과 그것이 문장속에서 다른 품사로 전환되면서 가지게 되는 뜻, 기능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한자 星은 《새옥편》에 《별》, 《이십팔수의 하나》라는 뜻만 있으며 《별처럼》이라는 뜻은 없다.

한자 十은 《새옥편》에 《열》이라는 하나의 뜻만 있으며 《열로 하다》는 뜻은 없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별처럼》, 《열로 하다》는 뜻은 사전에 올라있는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해당 문장안에서 립시로 이루어진 뜻이다.

립시로 이루어진 뜻은 영원히 존재하는 뜻이 아니라 한자 星, 十, 異 등과 같이 문장밖에 내놓으면 없어지며 본래 가지고있는 사전적인 뜻만 존재한다. 그리고 해당 문장안에서 립시로 이루어진 《별처럼》이라는 뜻은 부사적인 뜻이며 문장속에서 립시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명사 星(별)은 문장속에서 주어,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기본기능이며 상황어의 기능은 기본기능이 아니라 립시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 十(열)의 《열로 하다》는 뜻은 문장속에서 립시로 이루어진 동사적인 뜻이며 十은 립시 동사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사 十(열)은 문장속에서 주어, 보어,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기본기능이며 동사술어의 기능은 기본기능이 아니라 립시기능이다.

이로부터 일정한 품사가 문장속에서 다른 품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현상은 한자가 가지고있는 사전적인 뜻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주는 현상이며 어휘구성을 풍부하게 하여주는 현상은 곧 단어조성수법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어느 한 품사를 다른 품사로 전환시키는 품사전성현상은 본질에 있어서 한자의 어휘구성을 풍부하게 하여주는 단어조성수법에서 제기되는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형용사의 품사전성한계점을 밝히려고 한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다른 품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현상을 분석하여보면 모든 품사에 걸쳐 다 작용하는것이 아니다.

그 한계는 첫째로, 형용사는 문장속에서 동사로 전환되어 쓰이는것이 기본이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일반동사로 쓰이는 경우, 의동의 뜻을 가진 동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경우, 사역의 뜻을 가진 동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일반동사로 전환되어 쓰인다는것은 그것이 일반동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쓰인다는것을 말한다.

례: 見盲老母近前拜 (눈먼 늙은 어머니를 보고 앞에 접근하여 절을 하였다.)

空巷登山 (거리를 비우고 산에 올라갔다.)

公低頭 (공이 머리를 숙이었다.)

우의 실례에 쓰인 형용사 近, 空, 低은 모두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일반동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동사술어로 쓰이었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의동의 뜻을 가진 동사술어로 쓰이는 용법을 형용사의 의동용법이라고 한다.

의동이란 말그대로 어느 한 품사의 뜻이 전환되어 동사로 쓰인다는 의미이다.

형용사의 의동용법이란 형용사의 의미에 《...여기다》라는 뜻이 첨부되어 립시 의동의 뜻을 가진 동사술어로 전환되어 쓰이는 용법을 말한다.

실례로 登東山而小魯登太山而小天下(동산에 올라가서는 로나라를 작다고 여기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다고 여기었다.)의 문장에서 小魯는 認爲魯國小의 의미를, 小天下는 認爲天下小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바로 의동용법이다.

례: 汝輕敵深入以至於此 (네가 적들을 가볍게 여기고 깊이 들어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鬱陵島饒魚竹倭利其有 (울릉도는 물고기, 참대가 많으니 왜놈들은 그것을 소유하는것을 리롭게 여기었다.)

郡守意哀其兩班貧無以爲償 (군수는 자기 생각으로 그 랑반이 가난하여 빚을 갚을수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었다.)

우의 실례의 형용사 輕은 《가볍다》의 뜻에, 형용사 利는 《리롭다》의 뜻에, 형용사 哀는 《불쌍하다》는 뜻에 《...여기다》는 의동의 뜻이 첨부되어 《가볍게 여기다》, 《리롭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는 동사술어로 전환되어 쓰이었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사동의 뜻을 가진 동사술어로 쓰이는 용법을 형용사의 사동용법이라고 한다.

사동 즉 사역이란 말그대로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시킴의 뜻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형용사의 사동용법이란 다시말하여 형용사의 의미에 《...하게 하다》는 뜻이 첨부됨으로써 립시 사동의 뜻을 가진 동사술어로 전환되어 쓰이는 용법을 말한다.

실례로 春風又綠江南岸(봄바람이 또 강남의 언덕을 푸르게 하였다.)의 문장에서 又綠江南岸이 又使江南岸綠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사동용법이다.

민족고전들을 번역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용법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례: 吾始與汝等入此島先富之 (나는 처음에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와 먼저 너희들을 부유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였다.)

우의 실례의 형용사 富는 《부유하다》의 뜻에 《...하게 하다》는 사동의 뜻이 첨부됨으로써 《부유하게 하다》는 동사술어로 전환되어 쓰이었다.

그 한계는 둘째로,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명사로 전환되어 쓰인다는것이다.

례: 高十九尺 (높이가 19자이다.)

許生登高而望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았다.)

弱固不可以敵強 (약자는 진실로 강자를 대적할수 없다.)

惡卑而慕尊智也 (비천함을 증오하고 존귀함을 그리워하는것은 지혜이다.)

우의 실례의 형용사 高와 弱은 문장속에서 《높다》, 《약하다》라는 뜻이 대상화되어 《높이》, 《약자》라는 명사적단어로 전환됨으로써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형용사 高, 強, 卑, 尊은 문장속에서 《높다》, 《강하다》, 《낮다》, 《높이다》라는 뜻이 대상화되어 《높은곳》, 《강자》, 《비천함》, 《존귀함》이라는 명사적단어로 전환됨으로써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쓰이는 문법적조건을 밝히려고 한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는 현상은 아무런 문법적규칙이나 문법적조건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쓰이자면 반드시 그에 맞는 문법적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는 문법적조건은 첫째로,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나 명사적단어의 앞에 놓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경우 형용사는 품사전성되어 일반동사술어로 쓰이거나 사동이나 의동의 뜻을 가진 동사술어로 쓰인다.

이것은 한문에서 어순의 수법인 술보결합관계를 리용한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자기뒤에 보어가 올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리용하여 형용사를 보어앞에 놓는 조건에서 형용사는 립시 품사전성되어 동사술어로 쓰이게 된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는 문법적조건은 둘째로, 형용사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뒤에 놓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경우 형용사는 품사전성되어 동사로 쓰인다.

이것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언제나 동사와 결합하여 그 동사의 의미에 가능의 문법적뜻을 첨부하는 작용을 한다는 특성을 리용한것이다.

례: 江河可竭 (강하천이 말라버릴수 있다.)

許生辭曰我欲富也棄百萬而取十萬乎(허생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백만량을 버리고 10만량을 가지겠는가!》)

우의 실례의 형용사 竭(마를 갈)과 富(부유할 부)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可, 욕망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欲의 뒤에 놓여 결합하였기때문에 동사로 쓰이었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는 문법적조건은 셋째로, 형용사가 한자 所의 뒤에 놓여 그와 결합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경우 형용사는 품사전성되어 동사로 쓰인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한자 所가 자기뒤에 놓인 동사와 결합되어 쓰인다는 특성을 리용한것이다.

례: 宜召所親共之 (마땅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하십시오.)

우의 실례에서 형용사 親은 한자 所와 결합됨으로써 그 뜻이 동사로 전환되어 쓰이었다.

형용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는 문법적조건은 넷째로, 형용사가 주어나 보어의 자리에 놓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경우 형용사는 품사전성되어 명사로 쓰인다.

명사가 문장속에서 주어,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은 그의 기본기능으로 된다. 이러한 명사의 기능을 리용하여 형용사를 주어나 보어의 자리에 놓으면 그 형용사는 전환되어 명사적단어로 쓰인다.

례: 寡固不可以敵衆 (적은 력량은 진실로 많은 력량을 대적할수 없다.)

한문의 품사전성현상은 형용사외에 다른 품사들에서도 일어나므로 앞으로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한문교육을 더욱 과학화해나가야 할것이다.